

치 사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으로 삼화사수룩재의 봉행을 축하합니다.

두타산의 정기가 빚어낸 삼화사는 천년 고찰로 그 역사와 명성에 걸맞게 불, 법, 승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조 최초로 국행수룩대재를 봉행하여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을 현재까지 설행하는 중요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전통불교 문화축제인 삼화사수룩재의 가장 큰 정신은 무차, 평등, 소통과 화합, 융합이라는 불교가 가진 주요한 정신문화와 일맥상통합니다. 현대의 생활불교 철학은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표방하며 새로운 삶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실천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모든 불자들의 큰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룩재를 설행하여 오면서 많은 수인작법과 범패작법 같은 중요한 무형의 문화유산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즉, 수룩재의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음악, 무용, 미술, 설단과 장엄 등의 풍부하고 훌륭한 종합예술적 가치는 중요한 전통문화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룩대재의 큰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삼화사국행수룩대재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되살려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으로 가꾸어 후대에 길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타산 삼화사국행수룩대재 보존회장이신 주지 효림스님과 신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를 치하하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